

투어 번호
LKVRYQVXST

라마야나 홀리데이(10일)

10일 · 9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0일간의 프라이빗 투어는 스리랑카 전역의 라마야나 트레일을 따라 힌두 서사시와 연결된 유적지들을 섬의 더 넓은 문화 및 자연 명소들과 함께 연결합니다. 경로는 북쪽과 동쪽의 담불라와 트린코말리에서 출발하여 캔디와 누와라 엘리야 주변의 산악 지역을 거쳐 얄라의 야생지와 갈레의 남해안으로 내려간 후 콜롬보 근처의 네곰보에서 끝납니다.

여행자들은 코네스와람 사원, 시타 암만 사원, 디뷰럼폴라 사원, 카타라가마 사원, 우상고다, 루마살라, 뭔네스와람 사원을 포함한 라마야나 전설과 관련된 사당과 랜드마크들을 방문하며, 동시에 담불라 석굴 사원, 시기리야 바위 요새, 캔디의 신성한 치아 유물 사원과 같은 주요 유산 유적지들을 둘러봅니다. 여행 일정에는 또한 차 재배지, 호튼 평야 트레킹, 얄라 지프 사파리, 향신료 정원, 캔디, 누와라 엘리야, 갈레, 콜롬보의 도시 투어가 포함됩니다.

이 투어는 전 일정 동안 전용 기사 가이드와 에어컨이 적절히 갖춰진 차량으로 진행되며, 유적지에서 유적지로 꾸준한 속도로 이동하며 중간 중간 호텔 체크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Airport → Dambulla

On arrival at Colombo airport you are met by a Lakpura chauffeur guide and driven to Dambulla, with visits to a historic cave temple and an elephant orphanage on the way.



Dambulla Cave Temple

The caves of the Golden Temple of Dambulla date back to the 1st century BC and hold ancient murals of the Buddha's life and hundreds of Buddha and deity figurines across five main caves, including the Cave of the Divine King and the Cave of the Great King. A giant golden Buddha statue stands a short distance outside the cave complex.

Lankapic · CC BY 2.5



Pinnawala Elephant Orphanage

This orphanage near Pinnawala village in Sabaragamuwa province cares for young elephants displaced from their natural habitat and offers a close encounter with the world's largest land mammal.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2 담불라 → 트링코말리 → 담불라

트링코말리로의 당일 여행에서는 절벽 위에 자리한 힌두 사원과 해양 국립공원, 그리고 인기 있는 해변을 둘러보고 다시 담불라로 돌아옵니다.



코네스와람 사원

트링코말리를 내려다보는 스와미 록 위에 세워진 이 사원은 코네사르 형상을 한 시바 신에게 봉헌되었으며, 전설에 따르면 라바나 왕이 한때 이 바위 위에서 수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Shamli071 · CC BY-SA 3.0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

스리랑카의 두 해양 국립공원 중 하나인 피전 아일랜드는 닐라벨리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크고 작은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리랑카에서 가장 잘 보존된 산호초를 자랑합니다.

AntanO · CC BY-SA 4.0



닐라벨리 해변

트링코말리 근처의 인기 있는 해안 지역인 닐라벨리는 스쿠버 다이빙을 비롯한 다양한 수상 스포츠로 유명합니다.

Anton 17 · CC BY-SA 4.0

Day 3 담불라 → 시기리야 → 마탈레 → 캔디

이날은 시기리야 바위 요새 등반과 마탈레의 향신료 농원 방문을 결합한 뒤, 캔디로 이동하여 시내 투어와 전통 무용 공연을 감상합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서기 5세기에 세워진 이 바위 요새는 카샤파 왕이 통치했던 곳으로, 거대한 사자 발 모양의 입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유명한 색이 바래지 않은 벽화를 감상하고, 계단식 정원과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를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과거 왕궁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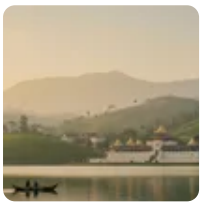
Wrobell1 · CC BY-SA 3.0



마탈레 향신료 농원

스리랑카의 향신료 수도로 알려진 마탈레 인근의 향신료 농원에서는 아유르베다에 사용되는 약초와 향신료, 식물들이 재배되며, 가이드와 함께하는 향신료 투어를 통해 그 용도와 origin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캔디 시내 투어

캔디 시내를 둘러보는 투어를 통해 저녁의 문화 공연에 앞서 이 도시를 소개받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캔디 전통 무용 공연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공연에서는 불 춤, 칼 춤, 그리고 드럼 연주에 맞춰 춤을 추는 캔디안 댄서 등 스리랑카의 전통 예술 형식을 선보입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4 캔디 → 누와라엘리야

이날은 캔디의 불치사 방문으로 시작하여, 누와라엘리야로 가는 길에 폭포를 거쳐, 라마야나 이야기와 관련된 두 개의 사원 방문으로 마무리됩니다.



불치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사원은 16세기에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화려하게 채색된 홀, 조각이 새겨진 기둥, 금박을 입힌 불상들이 있습니다.

A.Savin · FAL



람보다 폭포

람보다 엘라는 스리랑카에서 비교적 높은 폭포 중 하나로 세 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간 구간은 A5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고, 상단 구간에 도달하려면 다리 근처의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A.Savin · FAL



시타 암만 사원

학가라 식물원으로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이 사원에는 라마와 시타의 조각상이 있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현대적인 그림과 조각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Buddhika Mawella · CC BY-SA 3.0



디부룸폴라 사원

이 사원은 시타가 라마에 대한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 아그니 파리크샤(불의 시험)를 거쳤다고 전해지는 장소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곳에서 서약을 하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5 누와라엘리야

누와라엘리야에서의 하루는 호튼 플레인스 트레킹과 시내 투어로 꾸며집니다.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 근처에 위치한 이 고산 초원 및 구름숲 공원에서는 월드 엔드 절벽에서 펼쳐지는 전망과 베이커스 폭포의 시원한 물보라를 감상할 수 있으며, 고유 동물종과 고고학적으로 흥미로운 유적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누와라엘리야 시내 투어

고지대 산간 지역에 자리한 누와라엘리야는 영국인들이 영국 전원 마을의 양식으로 조성한 도시로, 조지안 및 퀸 앤 양식의 주택들, 골프장, 성공회 교회, 공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6 누와라엘리야 → 엘라 → 얄라

얄라로 가는 길에 엘라에 들러, 차밭 풍경과 유명한 다리, 기차역을 도보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엘라

엘라를 둘러싼 차밭과 바위 지형은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망을 선사합니다. 이 도보 코스는 나인 아치 브리지를 지나 루프를 그리며 지나가는 철로 설계가 특징인 데모다라 기차역까지 이어집니다.

Dan arndt · CC BY-SA 4.0

Day 7 얄라 → 카타라가마 → 얄라

이날은 얄라 국립공원에서의 이른 아침 지프 사파리와 저녁에 카타라가마의 주요 힌두 사원 방문을 함께 즐깁니다.

얄라 국립공원 지프 사파리

스리랑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에서 세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사파리에서는 표범, 물버펄로, 늘보곰, 코끼리 무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카타라가마 사원

카르티케야 수브라마니암 신에게 봉헌된 이 사원은 전설에 따르면 전쟁 중 라바나 왕의 무기로부터 라마 신을 보호한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세 번의 뿌자가 열리며, 방문객들은 과일, 향, 금전 등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Ghostface Buddha · CC BY-SA 2.0

Day 8 얄라 → 우쌍고다 → 갈레

갈레로 가는 길에는 라마야나 전설과 관련된 황량한 해안 고원을 지나, 라마야나와 연관된 언덕을 방문한 뒤 갈레 구시가지를 둘러봅니다.



우쌍고다

나무가 없는 이 해안 지역은 독성 중금속을 함유한 사문암 위에 자리하고 있어 식물의 생장이 제한됩니다. 라마야나 전설에 따르면 하누만이 라바나 왕의 영토에 불을 질러 이곳이 이렇게 황량해졌다고 하며, 라바나의 날아다니는 전차가 착륙한 장소로도 전해집니다.

A.Savin · FAL



루마쌀라

갈레 동쪽에 위치한 이 언덕은 정상에 하얀 불교 다고바가 있으며, 하누만이 치유용 약초를 구하기 위해 드로나기리 산을 랑카로 옮기던 중 떨어뜨린 조각이라고 전해지며, 시타가 이 섬에 머물렀던 이야기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갈레 시내 투어

1663년부터 조성된 네덜란드식 갈레 요새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오래된 성벽과 거리를 따라 식민지 시대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9 갈레 → 콜롬보 → 네곰보

북쪽으로 향하는 여정에는 콜롬보 시내 투어가 포함되며, 이후 숙박을 위해 네곰보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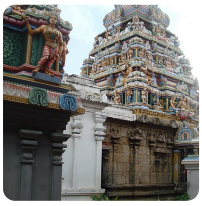
콜롬보 시내 투어

스리랑카의 수도를 둘러보는 이 투어에서는 올드 라이트하우스, 구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 갈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 사원, 국립 박물관 등의 명소와 함께 독립 광장과 레이스 코스 주변의 쇼핑 지역을 둘러봅니다.

Gihanud2001 · CC0

Day 10 네곰보 → 공항

마지막 날에는 칠라우 근처의 사원을 방문한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합니다.



문네스와람 사원

칠라우 근처에 위치한 이 지역 힌두 사원 단지는 적어도 서기 1000년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설 속에서 라마야나의 라마와 관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지역에 있는 시바 신에게 봉헌된 다섯 개의 고대 사원 중 하나입니다.

Leon Meerson · CC BY-SA 2.0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 Tips & Portages.
